

아시아 인문전통의 활용과 전망: 21세기 실학의 모색

**Kim Kyoung-Mi,
Dasan Cultural Foundation**

1. 논의에 앞서
2. 인문전통의 복원
3. 실학 연구 지평의 전환
4. 한·중·일 인문전통의 소통
5. 맺음말

1. 논의에 앞서

실학은 한국사회의 조선 후기에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형성하고 학문의 주체를 확장한 창조적 학문 조류였다. 당대의 실학을 현재 시점에서 조망하고자 할 때 실학이 지녔던 기성의 학문제도에 대한 실험정신과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고는 생명력과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실학의 모습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형상화되어 온 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실학을 새롭게 구성하여 대중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재해석의 전제가 된다.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학에 대한 각성으로 실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실학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걸맞는 실학의 이미지가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개혁사상, 실증·실용·실리주의, 근대적 사유, 역사의식, 과학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키워드는 실학의 구체적인 이미지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한다. 현재 시점에 걸맞는 생생한 감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까닭이다.

21세기의 학문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그 주체를 보존할 수 있는 이념과 윤리를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과제가 한국 인문 전통의 재발견·재해석을 모색하는 데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삶을 중심으로 하는(life-centered)’ 21세기의 실학의 정립으로부터 그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단적으로 말해 지난 세기의 실학 연구는 ‘구조’는 있어도 ‘인간’에 대한 전면적 고찰은 없는 것이었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져야 한다. 21세기 실학 연구는 실학이 지닌 하이브리드로서의 특성을

탐구할 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문학의 패러다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인문전통의 복원

1) 복원과 재해석

20세기 한국 인문학의 활동은 민족 위기의 상황에서 성립하였고, 한국 사회를 근대화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20세기 전반기부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내재적 발전론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특성을 밝힌 것은 그 중요한 성과였다. 지난 세기 한국의 인문학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타율적이며 정체된 것으로 보는 외부의 시선을 벗어나 한국사회가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1세기 초의 한국사회는 이미 근대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대부분 달성했고 양과 규모면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새로운 차원에서 적지 않은 과제를 대면하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로 변화가 일어나고, 구조의 변화에 못지않게 그 구조 속의 개인·주체의 위기가 대두하는 상황에서 그 변화를 '일국사적(민족단위적)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면 분명한 한계가 드러난다. 20세기 인문학을 지배했던 내재적 발전론의 성과를 계승하되, 보다 확장된 시각으로 21세기를 대면할 논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개인이 정체성을 지니고 독립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일, 타인의 존재를 긍정하며 그와 공존·상생하는 틀을 확산시키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21세기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한국의 인문 전통을 재발견해야 할 이유들이다. 한국의 지적 전통을 관류하는 큰 특징은 인간의 존재 의의를 드러내고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고양시키려는 정신사적 지향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오랜 동안 경험하며 축적해 두었던 전통을 자산으로 하여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한국의 인문 전통은 한국 문화, 한국인의 의식과 관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원형과 같은 것이다. 이는 유구한 민족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확립된 것으로, 이웃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자기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게 했던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다.

필자는 한국 인문 전통의 재발견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학을 재해석하고 이로부터 21세기 한국 인문학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외래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이것을 전통문화와 융합하여 자기 혁신과 자기 성장을 이루어 왔던 한국에서 한국 인문 전통의 특성을 가장 풍부하고 확연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 실학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학은 그간 한국 학계에서 깊이 천착해 온 주제 중의 하나였다. 더 이상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실학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한국의 사상과 문화를 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학의 유효성은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실학은 오늘날 다시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그 내용을 새롭게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아직 충분히 지니고 있다.

실학은 또한 공간적으로 그 학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다. 실학의 무대는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로 확장되었다. 그런 면에서 실학은 중세 해체기의 자생적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학문이기도 하며,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도 이와 유사한 학문적 조류가 존재한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공통성을 구성하려는 최근 범아시아 담론의 노력에 한국의 실학이 동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근거가 된다.

전통적인 인문학적 교양이란 고차적인 인간성의 형성을 위한 지성의 교육적 노력을 의미한다. 실학이 이루어 낸 성과 가운데에서 특징적인 점은 중세해체기와 근대 형성기에 나타나던 인간관계의 변화와 개인의 성장 양상에 주목하며 새로운 인간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존재들이 새로운 조건 아래 살아가는 데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덕성과 자질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천착하였다.

요컨대, 구래의 문화와 신문화의 융화,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통합의 결과물이 실학이었다. 실학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체고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인문학과 자연과학, 전통학문과 신학문을 아우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실학은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학은 다양한 성격의 분과 학문으로부터 창출된 하이브리드(hybrid)이다.

실학은 이미 동서 문화의 통섭을 통한 문화 확충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주자학자들이 배타적인 태도를 강화하며 시대 상황에 대응하려던 경직된 태도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결국 조선후기 실학은 끊임없이 경계를 확장하며 자기 혁신을 도모한 창조적 주체들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실학은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변하며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는 한국의 상황에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 현재의 상황이야말로 한국사회가 자기 혁신을 모색할 이념과 방법과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한국의 전통적 실용학문인 실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2) 소통과 대중화

현시점에서 한국 인문 전통의 사회적 필요성은 증대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정립하고 구성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국 전통 인문학은 전공학자들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식과 삶이 소통되지 못한 채 소수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목적과 지향의 상이함과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해 공통의 이해 없이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세계화의 열풍은 대중으로 하여금 전통이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통념까지 갖게 하였다.

대중화는 한국 전통 인문학의 존재를 일반 대중과 학문 사상계에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대인의 삶과 학문 활동에 통합하는 설정까지를 포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 인문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구성하여 보급하는 일련의 사업과 새로운 창안이 요구된다. 대중화가 오늘날 학문 사상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대중의 자리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중은 자기 삶의 주체이고 타자의 이웃이며 공동체의 주인이다. 대중은

사회의 문제적 징후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해결하는 적극성을 지닌다. 학문과 사상은 대중과의 접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하고 참다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 전통 인문학을 대중과 멀어지게 했던 또 하나의 요소로는 학문의 외래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 전략은 서구화였으며, 이것은 위로부터의 발전 전략이었다. 여기에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지식과 가치가 물리적·정치적·사회적 뒷받침을 받으며 대중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수용되었던 배경이 있다.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어떤 방안도 자기화하는 전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인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생적 학문하기’가 한국 인문학계의 최대의 화두로 대두하게 되고, 지식의 실용성, 특히 인문학의 유용성을 주목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학을 새삼스럽게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문학의 위기와 자생적 학문하기라는 최근의 두 가지 담론에 대한 모색이기도 하다. 이 둘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해석과 대응이라고 할 만큼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인문학의 위기는 거의 세계사적인 배경을 가지지만 인문학의 위기가 인문학 자체만의 위기가 아니다. 인문 정신의 결핍은 곧 대중과 사회의 위기를 의미한다. 더구나 인문학을 산업계와 교육계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시장에 반영된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사회적 요구보다도 더 적게 나타남으로써 더욱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근대는 전근대로부터 단절되고, 여러 이질적인 학문, 사상, 문화의 단편들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걸돈다. 개인들은 삶을 깊이 있게 향유하지 못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을 상실했으며, 민족적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근대화 발전 전략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들은 거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문화의 혼종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의 현실이 대변한다. 서구 근대 학문 사상은 분절되고, 전통 학문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한 채 점차 고립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는 학문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 일반의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삶의 문제와 만난다. 근대화 담론이 저물고 있지만 아직 근대화를 넘어서는 사회와 개인의 발전 비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서구적인 가치는 학교 교육의 주요한 이념이 되었지만 개개인의 자기 성찰과 윤리의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반면에 전통 문화의 여러 요소들은 아직은 한국인의 관습과 취향, 태도, 생활 속에 살아 있는데도 학문적 조명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얻지 못한 채 점차 소멸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는 한국인의 삶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데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 언어/ 이념/ 제도/ 학문/ 사상/ 관습/ 생활의 파편들이 서로 연계될 때 비로소 문화적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자생적 학문하기 담론은 한국인의 삶의 역사성과 깊이를 회복하는 학문을 하자는 열망의 표현이다. 이는 반성하기에 그치고 말 문제가 아니며,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 학자의 역할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중의 사회적 요구에 귀 기울이는 학문하기, 대중화를 통해 사회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학문하기에 대한 모든 인문학 전공자의 고민의 결과물이다.

자생적 학문하기와 인문학의 위기 극복은 한국 인문 전통의 대중화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구 근대는 이미 우리의 몸통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인문 전통의 발굴과 소통 방식은 순수한 전통의 회복, 전통으로 회귀하기와는 차별되어야 한다. 대중화는 한국 전통 인문학을 근대 학문 언어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근대 학문을 상대화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는 서구 근대에 포박된 우리의 시선을 확장함으로써 다른 문화에 우리의 시선을 여는 효과,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서구화와 근대화를 한국의 전통 인문학 속에 안착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실학 연구 지평의 전환

1) 연구 성과와 한계

실학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21세기에 걸맞은 실학의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난 세기의 실학 연구 방법을 검토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일제 강점기 이래로 약 100 여년의 연구 전통을 지닌 20세기의 실학 연구는 이 시기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던 과제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새로운 근대사회의 건설과 관련하여, 해방 후에는 산업 사회의 본격적인 건설과 관련하여, 실학 연구는 나름대로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며 그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

일제 강점기의 실학연구는 여전히 주자학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던 이 시기 조선 사회의 학문·사상·문화 풍토를 쇄신할 수 있는 대체 사상을 한국 전통의 학술과 문화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또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는 데에 필요한 정신적 지주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모색이기도 했다. 1930년대에 정인보는 성호 이익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유학자들의 새로운 학문에서, 조선의 낡은 학문인 주자학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시기에 정인보를 비롯한 몇몇 민족주의 학자들은 ‘조선학(朝鮮學)’ 운동을 벌였다. 이는 조선후기 실학을 통하여 민족혼과 민족문화, 민족사상의 정수를 발견하고 이로써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맞선다는 저항 의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기에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근대성을 내포한 높은 수준을 성취하였다는 자부심이 깔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해방 후 한국에서의 실학연구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몇 단계를 거쳐 방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이 시기의 실학연구는 대체로 한국사 혹은 한국경제사 전공자들이 먼저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문학과 철학 전공자들이 그 논의를 확대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산출된 실학연구는 첫째, 신생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설·발전시키려던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여 실학으로부터 근대성을 추출하려던 경향, 둘째, 실학의 사유로 대표되는 조선사회의 사상·문화유산이 남북한 분단체제와 어떠한 맥락을 갖는가를 고찰하는 정치경제학적 경향, 셋째, 실학은 중세 말기에 형성된 소농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며 주자학과 그다지 큰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대별된다.

20세기 한국사회에서의 실학 연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이념과 방법에 기초하여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새로운 사유를 모색하고 체계화했던 일련의 사상을 실학이라 부른 후에 그 역사성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20세기 한국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부응한다는 의식을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학은 ‘조선학’의 정수, 근대성의 맹아, 진보적 국가개혁사상, 성리학 최후의 이상론, 그리고 전근대 최후의 국가개혁론 등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해되었다.

이 시기의 실학 연구가 이룬 성과는 근대 100 여년 한국 역사와 문화의 축도였다. 하지만 최근에 조선후기 실학에 대한 연구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것은 그간 이론 실학의 상(像) 자체를 부정하면서 ‘실학은 없다’, ‘과연 실학이라는 개념으로 조선후기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극단적인 회의를 보이기도 한다.

20세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실학 연구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학을 사회개혁론, 국가개혁론에 주목하여 파악하는 데에는 일치했다. 실학을 근대적이라고 하든 중세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든간에 사회 혹은 국가를 개혁하려는 사상으로서 실학을 이해하고자 했던 공통점을 지녔다.

실학자들의 사고에서 정치사회 개혁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실학을 이처럼 파악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실학 연구는 조선후기를 살았던 여러 인간군들의 삶, 그들의 삶을 반영한 실학의 인간 이해, 그리고 실학을 주도했던 실학자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즉, 구조를 파악하고 제도와 법제를 보았으나 그 구조와 제도, 법제 속에 살았던 개인, 주체들에 대해서는 크게 무관심하였다.

2) 가능성과 과제

20세기의 실학 연구는 ‘구조’에 중심을 뒀으로써 ‘인간’을 전면적으로 살피지는 못한 것이었다. 이제 새로운 방향에서 시도되는 연구는 인간-주체에 무게를 옮겨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실학 연구는 실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자연과 인간, 사회와 인간의 유기적 관계망 속에서 찾으려 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학의 학문체계가 지녔던 광범위함은 과학적, 기술적, 의학적 주제들까지 내포하는 인문적 탐구방식이었으므로 동양 전통과학과 자연관이 지니는 인문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과학지식 자체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가치 이념의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동감 있는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해 내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실학자들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인간-주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문학 뿐 아니라 철학, 정치경제학, 문화예술학, 자연과학의 여러 영역에 걸쳐 폭넓게 검토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면 실학은 한층 완성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서면서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끊임없는 물음과 이에 대한 진지한 답이 없다면 삶의 존재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것이 인문학의 인식론적 특성일 것이다. 실학자들이 고민하며 개척했던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박제가의

경우에는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이익의 추구와 상업 활동이 갖는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유용한 이용(利用)과 후생(厚生)을 조화롭게 갖추고 실천하는 인간을 염원하였다. 이것은 주자학의 억상공관(抑商觀)과 결부된 인간 이해와는 양상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었다. 유형원의 경우에는 제도 또는 법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파악함으로써 주체의 노력보다 객관적 상황의 변화를 더 중시하였다. 이익은 법과 제도와 인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천착하였다. 법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힘을 상실할 것이며, 법의 변화 없이 인간이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는 그다지 현실적인 역량을 갖지 못하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국가·사회 공동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이들은 독특한 시각을 갖추었다. 이를테면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의 경우에 국가와 사회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삶의 재생산을 책임지며, 그들이 갖는 존엄성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지니고 있었다.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서유구, 최한기 등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자유로운 삶을 더욱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심 위에서 21세기의 실학 연구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인간과 자연과 사회가 성숙하게 관계 맺으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실학자들은 또한 과학기술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조건과 질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깊이 고심하였다. 그들은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 종래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올릴 발전 방안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인문학자인 동시에 자연과학자였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인문학적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그들이 자연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적 장치들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그 밖에도 과학 지식이 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이념에 관한 부분도 과학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실학자들은 사회개혁론자였지만 수양과 자기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도덕주의자였으며, 자연과학적 소양을 풍부히 갖춘 인문학자였다. 특히 정약용과 최한기는 자연세계의 객관적 실체를 더욱 강조하는 의학사상을 펼치고 전문의서를 편찬해 내기까지 했다. 그들이 개척한 실학은 사회개혁과 인간의 성숙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드러난 새로운 세계관이며 학문방법이었다.

21세기의 실학 연구는 방법론으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학제간 연구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은 이미 그 자체로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개척한 실학의 세계는 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기술학, 의학으로 나눌 수 없는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분과학문적인 요소들은 상호 연관된 맥락 위에서 자기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실학은 여러 다양한 성격의 학문이 창출해 낸 하이브리드이다. 실학이 박학(博學), 백과전서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는 여러 성격의 학문이 단순하게 종합·나열된 것만은 아니다.

늦어도 근대 이후의 인문학은 과학과 연속되고 단절되는 이중적 관계에 있으며, 이것이 인문학의 자리매김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문학과 예술, 철학과 역사, 자연과학 전공자들이 같은 주제로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성과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단위로 성숙해 온 근대 학문세계의 방법론을 지양하고 학제간의 통섭과 융합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인간다운 삶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체의 성장과 관련하여 실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연구 성과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연구 방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학의 대중화는 연구자와 독자, 혹은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벗어나기 위해 찾아진 방법이다. 지금까지 실학은 그 어떤 주제보다 학문적으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실학의 세계에 대중이 매끄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그다지 확보되지 못했다. 인문전통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그 소통의 기반을 확대하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대중화는 '주체'의 자기 성숙에 인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5. 한·중·일 인문전통의 소통

1) 중국의 문화전략과 인문학 활용

(1) 중국의 역사발전과 전통

중국이 과거에 동아시아의 문화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와 도교, 불교의 전통 인문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조직과 인사, 통치자의 리더십,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인문학을 중심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인문학 정신의 토대는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로부터 확립되었고, 이는 풍부한 정신자산으로서 자국의 전통문화 속에 융합되어 후인들에 의해 계승, 발양되었다.

한(漢)은 한민족의 정신적 동질성인 중화사상을 확립하였다. 한나라는 560년에 걸친 춘추전국시대와 진(秦)의 분열과 전쟁을 평정하고 통일 왕조를 세웠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실패를 거울삼아 국가의 정치이념과 윤리도덕, 그리고 왕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이론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인문학적 전통은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들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이 정치이데올로기는 동중서(董仲舒)가 유학의 이념을 법가사상과 혼합하여 정립한 하나의 사상이자 정치이념이었다. 현재 중국의 '중화사상'은 동중서의 이론에서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는 비록 주변 국가와 민족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게 하고,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문학을 장려한 데에 힘입은 것이었다.

세계국가로 발전한 당(唐)에서는 대대적인 불교연구가 진행되는 동시에 불교가 중국의 전통사상인 도가사상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상이 형성되었다. 이른바 화엄학(華嚴學)이라는 중국적 불교사상이 정립됨으로써 중국인들의 인생과 세계관이 정립되었다. 즉 인도의 불교에서 현세간(現世間)적 사상으로 변모함으로써 현실긍정의 정신을 창도하고, 이를 국가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당나라는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뿐 아니라, 서역과 로마까지 교류하였다.

송(宋)대의 성리학은 유교, 도교, 불교 삼교를 통일한 철학사상의 집대성이었으며, 사회개혁론의 출발이었다. 이때 새롭게 형성된 성리학은 당시의 사회개혁을 위한 이론발전의 과정에서 마련되었다. 중국의 전통 인문학에서 학문적 방법론은 종합적이었던 반면에 성리학은 분석적이었다. 성리학을 통하여 중국의 인문정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며, 공자의 인문정신의 외연을 확대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학은 공자에 의하여 배태되고 신유학과 양명학을 거치면서 성장하여, 조선의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에 의해 개화되었다가 다시 조선후기의 실학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한 구도로 이해할 수 있다.

(2) 현대 중국의 인문학 정책

동아시아의 사상을 대표하는 유학과 그 창시자인 공자는 시대에 따라서 성인(聖人)으로 신격화되기도 하고, 타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인문학의 암흑기였던 문화혁명기에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철학을 이해했으며, 물질이나 정신이나 곧, 경제와 도덕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유학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과거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도덕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인가를 공자의 사상에서 다시 찾고자 한다.

21세기 초에 중국은 대대적인 공자선양사업을 시작하였다. 중국에서는 2005년 9월에 공자 탄생 2,556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중국곡부국제공자문화절(中國曲阜國際孔子文化節)을 개최하였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0년대 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적으로 공자가 차지해야 할 위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이 행사에는 국가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중국중앙방송(CCTV)을 통하여 4시간 동안 생중계되는 등 중국에서 가장 국제적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공자와 관련된 유적인 곡부(曲阜)의 삼공(三孔:孔府.孔廟.孔林)은 이미 1994년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005년에 인민대학(人民大學)에는 국학원(國學院)이 설립되었고, 같은 해에 중국사회과학원에는 유교문화연구중심(儒教文化研究中心)이 설립되어 유학(유교)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중적으로는 논어(論語) 낭송대회 및 유교 경전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성균관에서 행해지던 공자추모 행사인 석전제(釋奠祭)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교행사의 문화재였다. 이제는 이 행사를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지혜가 필요하다.

(3) ‘공자 아카데미’를 통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중국은 전통 인문학을 통하여 국제적 위상제고를 추구한다. 현재 중국은 ‘공자 아카데미’를 통하여 문화수출 및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11월 4일 북경에서는 중국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이 모여 “중국-아프리카 협력논단(FOCAC: Beijing Summit of the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개최하였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 원수를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주석인 후진타오(胡錦濤)는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케냐 등에 ‘공자 아카데미’를 건립하였고, 현재 전 세계 64개 국가에 무려 210개의 공자학원이 세워져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최근에는 칼 막스의 고향인

트리어시에도 독일에서 여덟 번째인 공자학원이 세워졌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전 세계에 유학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던 것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국시(國是)로 삼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틀에 묶여 있지 않고, 등소평 시대를 넘어 과감히 자유경쟁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지향한 중화사상의 확장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새로운 인문학의 아젠다를 통하여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국가운리를 확립하고, 동시에 국가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8월 8일 올림픽 개막식 때 그동안 다른 올림픽 개최국이 참가국 입장 순서를 현지 발음의 영문 알파벳으로 정해 왔던 관행을 깨고, 한자의 간체자(簡體字) 획순에 따라 결정했던 것도 중국 인문학의 이른바 ‘차이나 스탠더드(China Standard)’의 전면적 부상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 일본의 인문학과 문화정책

(1) 인문학의 장려

일본의 일본식 서구화는 실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찍이 “아시아를 넘어서 서구로(脫亞入歐)”를 외쳤던 일본은 서양 근대의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여 아시아의 선진계열임을 자임해 왔다. 일본의 근대화는 단순히 서양의 기술문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유학과 불교를 실천적 학문으로 개조하였고,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자신들의 실천적 이용에 맞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정신은 바쿠후(幕府) 지도자들의 인문학 장려로 확립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이들은 국가발전을 위한 이념적 토대로 인문학을 장려하였고, 이를 구체적인 국가개혁의 중요 이념으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대화(大和)사상으로 이를 결집하였으며 이러한 일본의 정신은 실생활에서 ‘깔끔한 끝맺음 정신’으로 나타난다.

일본 인문학의 특징은 내재성을 강조하고, 문맥적 실용주의를 중시하며, 이성이 지식의 기초로서 영향력을 가지면서 이론과 병행하고, 문헌적 권위만을 중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본 인문학은 실용주의를 강조하였다. 일본의 인문학은 주자학의 이기론(理氣論)같은 보편적·추상적인 이론에 몰두하기 보다는 이른바 예도(藝道)라고 하는 무예나 줄타기, 그림, 서예, 공예, 무용 등 구체적 분야에서의 실천적 경지를 중시하는 경향을 띤다. 일본의 전통사상으로 정립된 실용주의에서 실학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다른 학문적 영역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모두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보편지향적이고 순수철학적인 전통인문학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반면에, 실용성과 실천주의, 사회정치적 관련성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통 인문사상을 발전시켜 왔다.

(2) 근대 일본의 형성과 실학

17세기에 도쿠가와(德川)의 에도(江戶)막부는 일본의 통일정권을 확립하고 주자학을 공식적으로 후원하면서 체제를 정비했다. 이것은 근대적 정치 환경에서 통일국가를 건립하는 데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주자학에 맞서 고대의 학문을

지향하는 고학(古學)이 태동하였으며, 중국학에 대립되는 일본 고유의 학문을 지향하는 국학(國學)이 형성되었다.

고학은 인문정신을 추구하는 일본적 유학연구로서 고학자들은 주자학과 양명학 모두를 비판하고 경전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국학(國學)은 일본의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지극히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학문태도를 지향하였다.

주자학→고학→국학으로 이어지는 일본사상의 흐름은 ‘중국주의와 일본주의의 갈등’→‘중국주의로의 경도(傾倒)’→‘일본주의로의 회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일본의 사상과 전통 인문학은 16세기 후반부터 일본적인 고유한 특징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19세기에 이르면 일본은 유교 고전의 독자적 해석에 있어 당대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서양학문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난학(蘭學)을 마련하게 되었다.

난학은 일본이 서양의 근대문화를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는 중심사상이었고,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표방하는 일본의 실학이다. 한때 쇄국정책을 펴긴 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개항을 하여 서양의 학문과 과학기술을 습득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유학생을 유럽으로 파견하였고, 유학 후 귀국한 학자들은 서양학문의 용어들을 근대적 한자어로 번역하여 유통시키고자 했다. 한국의 근대학문은 근대 이후 일본의 이러한 번역작업에 힘입은 바 크며, 이 점은 일본의 인문학적 기반이 근대시기에 한국이나 중국보다 건설했음을 의미한다.

일본 근대화의 바탕이 된 실학은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일본 인문학 창조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실학은 무반성적 서구 따라 하기를 극복하고, 앞서 이루었던 자기들의 전통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일본사상으로 발전시켜 일본의 인문학 정신에 흐르는 실용주의에 매우 유익한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3) 현대 일본의 문화전략

일본은 문화청(文化庁) 주관으로 신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청은 일본의 문화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특히 인문과학적 측면에서 전통문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청은 문화·예술·문화재·문화교류·국어정책·출판 등 일본문화의 정책개발 및 대중화를 총괄하고 있는데 21세기에 들어 신문화입국을 대대적으로 지향했다. 1996년에는 문화예술 진흥정책으로서 ‘Art Plan 21’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문화정책을 통하여 실천해야 할 과제로 ① 국제문화교류(대외문화정책)의 확대, ② 평생교육과 문화, ③ 지역개발과 문화, ④ 산업경제와 문화 콘텐츠의 결합, ⑤ 정보화 사회와 문화, ⑥ 문화의 관광상품화, ⑦ 문화의 사회복지화, ⑧ 다양한 지방문화의 전개, ⑨ 문화정책의 법률 확립과 문화예산 증가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일본의 문화전략은 정부기관의 종합적 협동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 계획은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현대 일본의 문화전략의 기초가 되었다. 현대 일본의 문화전략은 문화의

자립성을 최대한 배려한 행정 조직, 평가 시스템, 수속 등의 체계적 전략에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일본의 전통인문학의 형성과 현대의 문화정책에는 철저히 실용성을 중시한 실학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다양한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사상의 집합체로만 여기지 않고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한 일본화를 향해서 집중하였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일본의 전통 인문학과 문화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3) 한국의 문화전략과 실학

(1) 인문학의 전통 잇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일본은 국가의 발전전략을 전통 인문학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 인문학의 바탕이 곧 실학이었다.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중국과 실학의 나라인 일본은 국가발전의 전략을 철저하게 실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18·19세기에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훌륭한 학자들과 인문학의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은 근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혹독한 민족적 시련을 겪었다.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문정신의 함양과 세계 속에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인문지식을 보존하는 일만큼이나 인문지식을 창안해서 유통시키는 유용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인문학적 총체성을 대표하는 인문학 정신이 확립되어 각 제도와 방면을 고루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에는 인문학 전통에서 공리주의(功利主義)·실용주의(實用主義)·합리주의(合理主義) 등과 같이 매우 훌륭한 사상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성리학을 조선 건국의 기초로 실천하고, 성리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조선성리학이 존재한다.

특히 조선 후기에 활기를 잃게 된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인문정신을 발전시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을 비롯한 뛰어난 실학자들이 있다. 비록 시대적 한계가 그 당시에는 걸림돌이 되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약 170여년을 뛰어넘어 그들이 지녔던 인문정신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약용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의 인문정신을 면면이 계승한 많은 선각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남긴 문헌기록도 풍부한 양을 지니며 생생히 잘 보존되어 있다.

이제 한국의 학문과 전통 사상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실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걸맞는 실학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인문학적 전통을 재발견하고, 이를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실학정신의 본질 자체이다. 실학 연구는 어떤 특정한 학파와 사상으로 제한시키지 않으면서 당대의 사상들을 그 흐름과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유연하게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실학의 재발견은 한국의 학문적 전통을 새롭게 바라보고, 한국의 미래의 실용적 사상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되는 한국 실학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실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한국의 인문정신을 고양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학문적·문화적 공통성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실학은 동아시아의 공유사상이기 때문에 훌륭한 전통을 복원하는 일은 ‘아시아적 가치’를 한층 끌어 올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중국·일본·베트남 등으로 확대된 동아시아 전근대 학문의 재해석과 현대화라는 공통의 아젠다 설정과 공동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실학을 대중화하는 작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실학을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전통학문의 정수로서, 화합과 창조정신의 발로로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돕고 한국학을 세계화함으로써 한국학을 이미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실학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와 문제적 징후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 실학자들의 저술은 한국 전통사회가 발전시켰던 높은 수준의 실용적 학문으로서 지침서의 성격이 중시되었다. 대중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문적 삶’에 필요한 자원을 실학으로부터 발견하는 데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미래 인문정신과 실학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실학에서 한국의 인문학적 전통을 찾고, 이를 20세기의 정신문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간 축적된 실학연구의 성과는 방대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문(文)·사(史)·철(哲)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학 연구가 일제의 식민지 논리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 고유의 근대성 발굴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역사학적 관점의 이해가 주류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문학과 철학적 방면에서의 연구는 깊고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학자들의 기초 공부였던 유학 혹은 성리학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절적이거나 배타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생겼다. 이로 인하여 각 분야의 연구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셋째, 현재 한국에는 각 대학은 물론이고 개인·사회단체 등에 실학이나 특히 실학의 대명사로 쓰이는 “다산(茶山)”을 내 건 연구소가 매우 많으며 연구 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사상에 대해 문학, 역사학, 철학을 위시하여 자연과학사상의 영역까지 포함시킨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즉 현재까지는 각 분과학문으로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개별학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분화된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실학연구의 지평을 새롭게 열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도 3개 밖에 지니지 못한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을 6개나 가진 국가이다. 특히 한국에는 조선후기의 유명·무명의 많은 실학자들이 남긴 방대한 자료가 있다. 그만큼 한국에는 인문학의 전통이 훌륭하고 그 정신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문연구자와 연구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국가적 전략으로서 인문학의 부흥을 필요로 한다. 이제 실학을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현대문화적 콘텐츠로서 인문학 전통의 재해석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이 인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인문학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문학 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시각의 연구 방법도 수립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학제간의 연구이다. 예를 들면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는 문(文)·사(史)·철(哲)은 물론, 언어·지리·군사·행정·정치 등 여러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인문학적 면모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공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생산적 비판을 통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실학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학문사상 전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 성과물의 결과로는 학계에 전통 학문과 현대 학문을 결합한 자생적 학문하기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범아시아 전근대 학문의 대중화 등의 공동의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작업도 가능하리라 전망한다. 이렇듯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면 실학자 개인의 특성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화가 촉진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실학연구의 결과를 집대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제화를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역사적으로 볼 때 유학을 비롯하여 동양의 지적 전통은 인문정신을 고양시키면서 자기변화(self-transformation)의 노력을 통해 인간다움의 격조를 최고도로 끌어올리면서 형성되어 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인간의 존재의의를 긍정하고 인간이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향상시키려는 인문정신이 동양문명의 근간이 되어왔다. 20세기의 실학은 근대성이라는 역사적 위치를 떠안았지만 그 복합적인 학문·사상·문화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실학은 이제 ‘번역’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다. 실학의 재해석과 대중화가 가능하다면 실학은 상당한 힘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다. 실학은 중세해체기의 한국 전통 학문으로서 오늘날 대중과 가장 접촉하기 쉬운 학문·문화 영역을 개척하였다.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 양식과 결합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인의 문화적·사상적 역량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실학이 사회를 이해하고 구성하는데 활용했던 개념과 이론, 수양에 활용한 실천적 방식은 현재적 시점에서 자생적 학문하기의 이론적 자산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실학이 한국의 인문 전통으로 생명력을 계속 지니기 위해서는 전공 학자들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로서 대중화함으로써 한국 인문 전통의 향유 주체를 확대하여야 한다. 실학 자체가 학문 문화 주체의 산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실학은 근대성의 측면에서 조명되었기 때문에 실학과 실학자의 삶이 지닌 풍부한 내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 실학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실학자의 문제의식과

실학자의 삶의 태도, 그들의 미적 감수성, 사회적 교류와 정치적 역할까지도 다시 조명하여 21세기의 문제의식에 합당한 의미와 연관관계를 밝혀내어야 한다.

실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실학자의 삶과 사회적 맥락을 긴밀하게 연관시키며 좀더 새로운 해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 지식인과 대중의 경우에도 실학을 꼼꼼이 음미하며 자신의 삶과 결부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실제 삶과 맞는 부분을 발견해야 한다. 실학자의 생애와 학문, 그들의 문제의식과 노력, 고민, 삶의 태도와 가치관, 교유와 활동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접촉면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일상과 나의 생활, 그들의 자기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방식, 사회참여 태도 등, 역사 속에서 신뢰할만한 인물과 나를 대조하고 되돌아보는 일은 과거 한국의 전통적 인물을 생동감 있게 받아들이고 자기화하는 바람직한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전통 인문학의 정수이며, 조화와 창조정신의 발로인 실학을 재발견하고 이를 21세기적 인문정신으로 고양시키는 것은 현재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미래를 움직일 새로운 인문정신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실학의 문화적 복합성은 오늘날 실학을 다양한 맥락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실학이 이러한 종합적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전통 학문이라는 점은 동아시아와 한국 전통 문화로 문화적 자원을 넓혀나가려는 한국 인문학의 현재적 요구에 부응한다. 또한 실학은 동아시아 사회의 자생적 근대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회의 인문 전통 재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1930년대, 일본은 1960년대, 중국은 1980년대에 실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각국이 단일적으로 진행하다가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한중실학사연구(한국실학연구회, 민음사, 1998) 등을 공동으로 출간하였고, 실학국제학술대회를 3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나, 이미 각국이 이루어낸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에 비하면 공동연구성과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문명 개념이나 지리 개념을 떠나 아시아적인 공통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슬로건에 학문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아시아 공동 실학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담론을 형성하면서 세계적인 실학거점연구소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실학의 서구 문화적 요소는 동서 문화의 만남을 통한 문화 확충의 경험과 성과를 제공한다. 실학은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학문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근대로의 전환기에 고대가 재발견되었듯이 탈근대로의 전환기에 중세의 재발견 가능성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 중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문학의 위기가 새삼스럽게 거론되었고 이는 국가적 정책으로서 인문학의 부흥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훌륭한 인문학 전통을 지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대에 맞는 문화적 콘텐츠로 충분히 재창조해 내지는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실학이 개척한 학문 영역을 현대 사회에 적절하게 변용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실학의 학문 전통을 복원하고 현대 사회에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후 실학이 삶 중심의 학문으로 되살아나게 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를 할 수 있기를 스스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권순철, “실학을 다시 생각한다: 그 근대적 성격과 관련하여”, 전통과 현대, 2000.
- 김경미, 박제가 시의 연구, 태학사, 2007.
- 동아시아문화포럼,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9호, 열화당, 2002.12.
- 潘大尹, “越南의 儒學 :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기 월남 유학의 특징 및 ‘실학’의 취향에 대한 고찰”, 제4회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한국실학연구회, 1996.
- 송영배 외, 한국 실학과 동아시아 세계, 경기문화재단, 2004.
- 송재소, “동아시아 실학연구가 가야할 길”, 한국실학연구 12, 한국실학학회, 2006.
- 심경호,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의 한국한문학에 나타난 실학적 특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실학연구 제5집, 2003.
- 小川晴久(하우봉 역), 한국실학과 일본, 한울아카데미, 1995.
- 小川晴久(한예원 역), 에도시대의 실학과 문화, 경기문화재단, 2005.
- 이동환, 실학시대의 사상과 문학, 지식산업사, 2006.
- 임형택, “21세기에 다시 읽는 실학”, 대동문화연구 제42집, 2003.
-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2000.
- 丁冠之, “儒學(實學) ‘趨時變通’, ‘和諧包容’의 思想과 尙德精神”, 제7회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한국실학연구회, 2002.
- 조성을, “동북아 시대의 실학 개념과 향후 연구방향”, 국제실학학술회의 논문집, 경기문화재단, 2003.
- 조성을 외, 실학연구 논저목록(상·하), 경기문화재단, 2005.
- 주철성, 한국 실학과 동아시아 실학 비교, 한국학술정보, 2005.
- 진재교, “실학과 문학의 허와 실에 대한 변증”, 한문학보 제9집, 우리한문학회, 2003.
- 하우봉 외, 에도시대의 실학과 문화, 경기문화재단, 2005.
- 한국실학학회, “실학과 동아시아 자본주의”, 제7회 동아시아 실학 국제학술회의, 2002.
- 한국학술협의회 편, 지식의 지평 2: 인문정신과 인문학, 아카넷, 2007.
- 홍원식 외, 실학사상과 근대성, 예문서원, 1998.